국 태생 한인, 셋 중 둘은 타인종과 결혼

s Angeles 입력 2026.10.19 21:31 업데이트 2026.10.21 09:14

[미주한인연구소 조사 발표 (1)]
개신교인 48% "한인교회 안가"
정체성은 '한국계 미국인' 다수

마크 김 KAI 대표가 전국 미주 한인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.

국에서 태어난 한인 3명 중 2명은 타인종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인 교회를 벗어나 다민족 교회에 출석는 비중도 크게 늘면서, 미주 한인사회의 인구학적 지형과 문화적 스펙트럼이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다.

는 미주한인연구소(KAI)가 한인재단(KAF)과 함께 19일 발표한 '미주 한인사회 현황과 미래 방향' 설문조사 결다.

선 결혼 형태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. 기혼 또는 동거 중인 한인 1세 가운데 비한인 또는 타민족 배경의 우자를 둔 비율은 24.6%에 머물렀다. 그러나 1.5세의 경우 비한인과의 결혼 비율은 46.1%로 뛰어오른 뒤, 미 생인 2세 이상에서는 66.2%까지 치솟았다. 세대를 거칠수록 타인종과의 결혼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다.

우자의 인종 외연도 대폭 확장됐다. 백인 배우자를 둔 비율은 1세의 경우 17.7%였으나 2세에서는 37.7%로 두 이상 높아졌다. 다른 아시아계와 결합한 비율은 1세 2.7%에서 2세 이상 17.9%로 급증했다. 1세 가운데 히스 배우자를 둔 비율은 1.2%, 흑인 배우자는 0.5%에 불과했지만, 2세 이상에서는 각각 6.1%, 5.5%로 조사돼 다 종·다문화 가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간 이민사회의 구심점이자 네트워크의 중심 축 역할을 해온 한인 교회의 영향력 약화도 통계로 확인됐다. 한인 신교인의 28%는 다인종 교회에, 20%는 백인이 다수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같은 '탈 한인교회' 흐름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확연했다. 세대별로 보면 한인 1세 개신교인 가운데 한인 에 출석하는 비율은 52%로 과반을 차지했지만, 1.5세는 45%, 2세는 38%로 급감했다.

소정 뉴욕주립대 버펄로 사회학·범죄학과 부교수는 "한인사회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정체성 성과 커뮤니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"며 "기존 조사에 비해 전통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비율은 줄어든 , '영적이되 기존 종교 틀에 매이지 않는다'고 답한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"고 분석했다.

세대의 실질적 언어 적응력과 미국 사회 동화 수준도 기존 관념을 깨뜨렸다. 1세대의 영어 사용에 큰 장벽이 있 이라는 통념과 달리, 상당수가 일상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며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을 보였다.

제로 한인 1세대의 69.5%는 영어를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. 이 중 34.6%는 자신의 영어 수준을 '매우 능숙 다'고 스스로 평가했다. 영어를 매일 사용하는 비율은 1.5세 89%, 2세 이상 96.8%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실 어 사용이 늘고 있다.

처럼 한인사회의 외형과 생활 양식은 크게 변모했으나, 민족적 뿌리에 대한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었다. 자신의 체성으로 '한국인(Korean)'을 꼽은 응답자는 46.5%, '한국계 미국인(Korean-American)'은 41.7%에 달했 . 반면 순수 '미국인(American)'을 선택한 비율은 18.5%에 그쳐, 문화적 동화 속에서도 한인으로서의 유대감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한인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 병행으로 돼다. 이 가운데 자신을 한인이라고 밝힌 1466명의 응답값을 최종 분석에 활용했다. 전체 표본오차는 95% 신 준에서 ±2.48%포인트다.

본지는 미주 한인사회 현황과 미래 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.

· 사진=이정범 기자

미국 # 타인종 # 미주 한인사회 # 한인 교회 # 한인 개신교인